



즉시 배포용: 2017 년 5 월 2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제 2 차 “NATURALIZE NY” 시행하여 뉴욕 시민의 시민권 획득 지원

1,500 명 저소득층 이민 근로자의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하는 기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자격을 가진 뉴욕주 이민자의 미국 시민권 신청을 권장하며 이 분야 최초의 정부-민간 협력 프로그램인 “NaturalizeNY”의 제 2 차 시행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획은 귀화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서 무료 자격 심사, 신청 절차 지원, 귀화 시험 준비 및 시민권 자격을 갖춘 저소득 이민자들을 위한 제 2 차의 1,500 개 추천권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NaturalizeNY 은 뉴욕 주 이주자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에서 로빈 후드 재단(Robin Hood Foundation), 뉴욕 커뮤니티 신탁(New York Community Trust), 스탠퍼드대학(Stanford University), 조지메이슨대학(George Mason University), 올버니 뉴욕주립대학(SUNY Albany) 등 대학 및 언론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역사는 전 세계에서 자신들과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민 온 이민자들의 역사입니다. 다사다난한 이 시국에 뉴욕 정부는 여러분이 다양성을 강점으로 삼는 뉴욕 가족의 일원으로 되는 것을 환영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NaturalizeNY 은 뉴욕 주 이주자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에서 로빈 후드 재단(Robin Hood Foundation), 뉴욕 커뮤니티 신탁(New York Community Trust), 스탠퍼드대학(Stanford University), 조지메이슨대학(George Mason University), 올버니 뉴욕주립대학(SUNY Albany) 등 대학 및 언론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리합니다.

Cuomo 주지사의 NaturalizeNY 기획은 지난 7 월에 시작하였으며 첫 6 개월간 3,200 여 명 뉴욕시민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도왔습니다. 여기에는 2,250 여 명의 저소득 이민자들이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연방정부의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추천 방식으로 시민권 신청비 추천권을 제공하였습니다. 960 명 가까이 뉴욕 이민자가 2016 년 최초의 무작위 추천에 등록하였으며 그중 389 명이 무료 추천권을 획득하여 지난 12 월에 연방정부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2 차 추첨에서는 최대 1,500 개의 추첨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 2 차 추첨 프로그램에서는 계속하여 www.NaturalizeNY.org 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등록한 수천 명의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가진 뉴욕시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기회의 땅을 상징하며 뉴욕 가족의 일원으로 되는 모든 사람을 품어 우리의 경제를 성장하고 위대한 뉴욕주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합니다. 지난해 시행한 NaturalizeNY 의 엄청난 반응은 우리주가 오늘날까지 전해오며 어느 때보다 풍부한 이민 역사를 증명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여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환영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할 것입니다.”

NaturalizeNY 는 시민권 신청 절차를 통하여 포괄적인 비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자격 심사, 신청 절차 지원, 귀화시험 준비 및 연방 비용 면제 신청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NaturalizeNY 은 뉴욕시민들의 기회를 늘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경제도 부양할 것입니다.

도시 연구소(Urban Institute)에서 진행한 2015 년 조사에 따르면,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의 소득이 평균 8.9% 증가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공공 자금의 혜택에는 더 적게 의존하게 됩니다. 뉴욕 시의 경우에, 시민권 획득 자격이 있는 모든 이민자가 시민이 되면 7 억 8,900 만 달러의 세수가 증가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공적 지출의 감소와 더불어 8 억 2,300 만 달러의 순이익을 가져옵니다.

신청비 지원 추첨권

미국 인구조사국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 주에는 915,000 명의 시민권 자격을 갖춘 영주권(green card) 보유자가 있으며 약 654,720 명이 뉴욕시에 거주합니다. 도시 연구소의 2015 년 조사에 따르면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은 주요 원인은 신청비용과 관련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이민자들을 위한 연방 신청비용 면제 신청제도가 있으나 많은 신청자가 시민권 신청비용 면제 자격보다 수입이 많아 제한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 소득이 35,000 달러인 사람은 연방 신청비 면제의 규정 한도보다 훨씬 많아도 시민권 신청 비용은 그들의 한 주간 임금에 해당합니다.

1,500 명의 시민권 신청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뉴욕주 정부, 로빈 후드 재단 및 뉴욕 커뮤니티 신탁회사는 125 만 달러 이상 투자하여 비용 지원 추첨권을 통한 725 달러의 신청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캠페인 협력기관을 통하여 연방 정부에 직접 지급하며 시민권 신청 절차의 전체 비용을 부담합니다. 추첨권은 뉴욕 주 이주자 사무국, SUNY 올버니, 스탠퍼드 대학 및 조지메이슨 대학의 직원들이 8 월에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들을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정합니다. 신청 희망자들은 www.NaturalizeNY.org 를 방문하여 시민권 사전 심사와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민자 사무국의 상담 전화 [1-800-566-7636](tel:1-800-566-7636) 번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는 464,000 명 좌우의 이민자가 연방정부의 시민권 신청비용 면제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비용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NaturalizeNY 프로그램은 2,250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비용 면제 자격 심사와 비용 면제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연방비 면제는 가구 연 소득이 연방 빈곤 지표(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50% 이하인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는 대신에 NaturalizeNY 추첨 프로그램은 소득이 연방 빈곤 지표의 150%~300%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뉴욕주 교구의 가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 Archdiocese of New York) 전무이사 **Kevin Sullivan** 몬시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국민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진정으로 뉴욕에 통합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이 말은 이 나라의 새 국민으로 된 사람들이 성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뉴욕의 모든 이민자가 그들이 열정, 재능 및 활력을 뉴욕의 비즈니스, 시민과 문화를 이끌어가는 데 항상 그래왔듯이 헌신하도록 합니다. NaturalizeNY 은 이민자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완전히 속하고 그들의 새 보금자리를 위하여 계속 헌신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신탁회사의 프로그램 책임자 **Shawn Morehead** 와 로빈 후드의 관리책임자 **Veyom Bahl**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aturalizeNY 은 저소득층 이민 근로자들에게 미국 시민이 되어 더욱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획득하는 데 유일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의 협력자가 되어 이민자 커뮤니티에 시민권 신청의 재정 장벽을 극복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히스패닉 연맹 회장 **José Calderó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aturalizeNY 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우리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영향과 공명은 현재 워싱턴 정부의 정치 행태가 가져다준 영향보다 훨씬 큼니다. 히스패닉 연맹은 이런 노력에 다시 한 번 힘을 보태게 되어 기쁘며 **Cuomo** 주지사와 주무장관 **Rosado** 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주 이민자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보호와 행복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 상무이사 **Jo-Ann Yo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ONA

센터에서 뉴욕시민들이 시민권 서비스 요구에 대한 드라마틱한 증가를 보아왔습니다. 저소득층과 근로자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높은 신청비용입니다. 우리는 최소 1,500 명의 저소득층 뉴욕시민이 미국 시민권을 얻고 많은 뉴욕 근로자들이 가장 넘기 어려워하는 장벽을 없앨 기회를 제공한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이민자 사무국의 우리 동료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새 시민권자들이 비난받는 최근에 우리는 뉴욕을 환영받고 가치가 있는 집으로 만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망 있는 조치를 한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CUNY Citizenship Now! 책임자 **Allan Wernick**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NY Citizenship Now!** 프로그램은 **NaturalizeNY** 기획을 지원하고 이에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천 명의 뉴욕시민을 돕는 전국에서 가장 크고 대학을 기반으로 한 시민권 및 이민자법 서비스 프로그램으로서 시민권 신청 지원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Citizenship Now!** 프로그램과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는 뉴욕 이민자들의 재정 장벽을 극복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을 도울 뉴욕주 이민자 사무국과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뉴욕의 선도적 노력 성과

Naturalize NY 은 이민자들과 소외층이 뉴욕의 시민 생활과 경제생활에 완전히 합류하는 것을 돕는 **Cuomo** 주지사 노력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임기 첫 해인 2011 년에, 주 기관들이 일반 대중에게 중요한 서식 및 지침에 대한 무료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적 공공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정 명령 26 호를 발령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하에, 뉴욕주는 아래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 주에서 열심히 우리 경제에 대해 헌신하고 뉴욕주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법령에 따른 최초의 주급 이민자 사무국인 뉴욕주 이민자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 ONA**) 창설.
- 이민 지원 서비스 사기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령에 서명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이민자들을 이민 관련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출범.

가장 최근에, **Cuomo** 주지사는 근로자들을 공정하게 처우하고, 사업 운영자가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자 착취 근절을 위한 단속팀과 네일 살롱업계 단속팀을 출범하였습니다.

미국 시민 자격 취득

연방 정부는 개인이 의회가 정한 요건에 완전히 부합한 합법적인 이민자들에 대해서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귀화(**naturalization**)로 칭해지는 시민 자격 취득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신청서 제출, 연방수사국의 범죄경력조회를

위해서 사용될 지문 제출, 언어 및 시민 생활 시험 통과, 그리고 연방 이민국 직원과의 인터뷰가 포함됩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 시민권 수여식에서 충성 서약(Oath of Allegiance)을 한 후에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